

늘 단전에 집중하고 화두 참구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2>



'一心二門三大' 신행체계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를 받고 발심하여 깨달음을 성취하고, 그 지혜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불교에 입문한 자는 누구든지 우선 깨달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길에 자각(自覺)과 신앙(信仰)이라는 두 문이 있습니다. 자각은 자신의 불성(佛性)에 대한 인식으로 스스로 뒤아 연기(緣起)의 세계관을 통찰하여 정각(正覺)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이 고뇌하는 범부로서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자비광명을 의지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뒤아 자비광명에 의지함, 두 경우 모두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진실한 신심을

가 아니다. 문제는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구체적 실천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여 신행체계를 뚜렷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원효는 자신의 깨달음과 더불어 <대승기신론>을 중심으로 수많은 경론을 열람하고, 부처님의 일대교설에 대하여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이며, 그 믿음의 궁극은 '일체 경계는 일심(一心)인 지혜'라 하였습니다. 일심은 믿음의 대상인 동시에 마침내 성취해야 할 법(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승의 유일한 법으로써 일심을 세우고 일심인문(一心二門) 삼대(體相用)의 신행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정립한 신행체계에 의하여 스스로 뒤아 나아가거나, 자비광명에 의지하거나, 모든 수행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 제시 믿음의 궁극 '일체 경계는 일심인 지혜'

바탕으로 행하는 것이며, 인생의 근원적이고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수행론은 그 방법론이 다양하고 서로 자파의 수행법이 제법이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신의 근거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어느 문을 선택해야 옳은 것인지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라의 원효도 대소승 경전이 함께 유입되고, 유향파에 의해 새로운 이론이 도입된 시기에 이런 점을 매우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원효는 34세 무렵에 마음법을 깨닫고, 38~45세 사이에 요석 공주와 인연이 되어 설총을 낳았습니다. 그 후 외부의 비난을 감내하며 소성 거사(小姓居士)라 자칭하고, 오로지 저술과 불교 대중화에 전념하였습니다. 아마 이 시기에 불법의 큰 뜻과 신행체계를 확고히 세운 것입니다. 원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교의 큰 뜻이 상홍불도(上弘佛道: 혹은 상구보리) 하화중생(下化衆生)에 있음을 모른 바

문과 불법에 귀의한 일체 중생이다 함께 보리심의 원(願)을 품고 일심의 광대한 바다로 향하도록 화쟁(和淨)과 회통(會通)의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일심 이문 삼대' (一心二門三大)에서 일심(중생심 자체)이란 마음의 대상이자 성취해야 할 법입니다. '이문'에서 진여문(體大)은 불생불멸의 심체이며, 생멸문(相大)은 여래장 성공덕성이자 진여의 염상입니다. 마지막으 로 '삼대'는 앞의 체대, 상대와 함께 용대(用大)를 말하는데, 이는 여래장의 불가사의한 업용이자 진여의 정용입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행하는 모든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깨달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일심인문 삼대의 뜻을 이해하여, 어떻게 불교의 신행체계입니다. 신행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원효의 독백은 오늘날 한국 불교계에서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양산 정도원 원장>

서울 정릉에 자리잡은 삼보법회가 회관을 새로 증축해 기념식을 갖던 4월 18일 오후 2시 20분, 회관 3층에 자리잡은 '삼보선원(三寶禪院)'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20여명의 선객들이 막 입선(入禪) 준비를 하고 있었다. 딱! 딱! 딱!

입선을 알리는 죽비 소리와 함께 도심의 소음이 일시에 정적 속으로 빨려들어가듯 분위기가 연출된다. 삼보선원은 좌선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진하는 대표적인 시민선원. 삼보선원의 특징은 무엇보다 1대1 지도점검에 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정도 좌선과 개인점검인 입선지도(入室指導)를 하고 있다. 입선지도는 초대종달 이희의(禪道會 장립자) 거사에 이어 도심길기린 거사가 맡아왔으며, 97년 8월부터 정경문(61) 거사가 입선지도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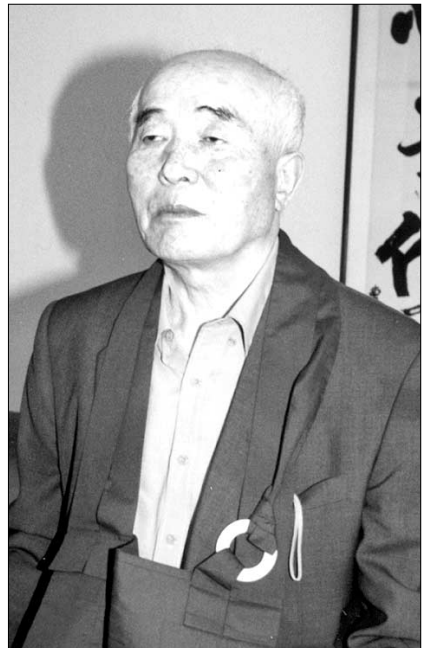
정경문 거사 보다 14세나 나이가 많은 선도회 최고령자이면서도 삼보선원의 입승 소임을 맡아 후학들에게 수범을 보이고 있는 법장 권영두(75) 거사. 그는 최근 <생활 속의 좌선수련 20년>(은우사)이란 책을 펴내면서 서울 응암동 자택(正眼軒, 011-384-4722)에서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책 발간과 동시에 서울대 불교학살회를 방문해 책을 나눠준 법장 거사는 앞으로 전국의 대학을 돌며 선 수행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법장 거사로부터 생활인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참선해야 할지를 들어보았다.

▲청년들에게 좌선을 권하는 까닭은?
- "복잡한 사회 생활에 뛰어들기 전부터 자신을 도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맺어주기 위함입니다. 저의 저서를 직접 펴내주고 한국의 대학가를 찾아다니면서 청년 불자들을 만날 생각입니다."
▲선(禪)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 "참선은 잃어버린 나를 찾던 나로 되찾아 내는 수련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사회악에 오염되기 전 천진난만한 나의 진면목(眞面目)을 밝히는 일입니다."

선도회 법장 권영두 거사의 '생활선'



20년간 삼보선원을 이끌어 온 정경문(중앙에서 왼쪽), 법장 권영두 거사.



청년들에게 참선을 권하는 법장 권영두 거사.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과 일체 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상을 실현하고자 할 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고, 날마다 삶은 언제나 새롭고 좋을 뿐입니다."

▲좌선에서 얻는 효능이 있다면.
- "집중력이 강화되므로 학업을 성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심한 사람은 배짱이 두둑해지고 대법해 지죠. 소극적인 성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됩니다. 몸이 쇠약한 사람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입문 7년만인 1990년 4월, 무문과 48칙을 투구했을까의 감회는.
- "내 자신의 변화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대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평상심으로 내 구실을 확실히 하고 살며 나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극한 위기상황이 닦혔을 때도 흔들림이 없었나요.
- "8년전 40여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갑자기 사별했지만, 평상심으로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98년 2월 나라의 위헌위기로 부도가 났을 때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결핍이 낙관하고 자족하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국 대학가 돌며 禪 홍보

문을 밝히는 일입니다."

"과거와 미래 집착하고 현실 그대로 낙관하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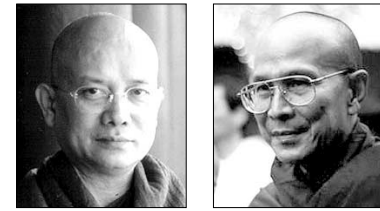
▲입선지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입선은 스승과 제자가 마주 앉아 화두공부의 결과를 점검하고 그 적부를 가려 주는 문답입니다. 자나깨나 틀리는 대로 바른 좌선 자세로 단전 호흡을 하며 무(無)자-무자-무자가 무엇인가 하고 꾸준히 공부하다가 무엇인가 떠오르는 경계가 있으면 다음 입실 때 스승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참선하면서 얻은 좌선의 요체는.

- "좌선은 심신을 본래대로 확실히 바꿔 사물과 일체가 되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초지 일관 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스스로 피나는 정진으로 몸소 겪어본 후, 실생활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좌선하면서 달라진 점은.
- "오랫동안 좌선하면 인격이 도야되므로 몸과 마음이 저절로 건전해지고 어떤 일이나

남방불교 고승 우조티카-우실라난다 스님 방한

세계적인 남방불교의 고승 두 분이 잇달아 방한해 국내 수행자들을 위해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연방주선원(원장 법주, 018-367-0078)은 세계적인 위빠사나 수행자인 우조티카(U. Jotika · 사진왼쪽) 스님을 초청, 5월 9-18일 경북 봉화 담마로카 수행처에서 10일간의 집중 수행기간을 갖는다. 개인 5주년을 맞은 보리수선원(원장 붓다리키타, 02-517-2871)도 6월 14-28일 아비담마

(논장) 학계의 최고 원로인 우실라난다(U. Silananda · 오른쪽) 스님을 초청, '아비담마 특강 및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우조티카 스님은 유명한 담마(Dhamma) 책 중의 하나인 <여름에 내린 눈(Snow in the Summer)>의 저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담마난다 위하라(Dhammananda Vihara)에 주석하는 우실라난다 스님은 미국테라바다불교협회, 버클리



법륜명상센터, 산호세여래명상센터의 지도자다. 김재경 기자

간(肝)의 지방간

간염, 간경화, 지방간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도종 웅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기미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생애 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내 깨끗이 씻고 해고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기미술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리에 넣고 원경 97마니를 덮은 뒤 원경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향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원경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불교신들의 만남, 불멸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새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을 건강하시고 영복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사랑하는 사람 이자연 씨

그리움으로 울고 말았다
그대 그리움
사랑으로 울고

내영혼 잠 못드는 밤
우두커니 홀로앉아

온 밤을 지새워 울고

못내 그리움 마음
그대 찾아 가고 싶어

원장 이영숙 님

■ 대추, 초 · 재운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032)345-5411
휴대폰: 011) 288-2944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천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니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 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 망해사 · 흥복사 · 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전주 군산 간 벚꽃길따라 100리, 윤달 삼사순례 오십시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김문소에서 김계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간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모암 대중일통